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기
독
교
대
한
감
리
회

청파교회



since
1929.5.1

하나님께서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 곳
청파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동 3가 85
☎ 713-5254(사무실) 717-2605(담임목사실)
Homepage : <http://www.chungpa.or.kr>

주 일 낮 예 배 순 서

【 송년주일 】

전 주	반주자
은총을 기리는 노래	비 전
다함께	
♠ 예배로의 부름	인도자
♠ 경배의 찬송	37.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함께	
♠ 공동기도	다함께

시간의 창조자이신 하나님,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더라.’ 경외심에 사로잡힌 성서기자의 고백이 일 년의 마지막 주일을 맞은 우리의 가슴속에 울리고 있습니다. 돌아보면 우리가 걸어온 발자국이 어지럽기 그지없지만, 그것을 하나로 꿰고 있는 것은 주님의 신실하신 사랑이었습니다. 우리를 귀중한 손님처럼 대접해주신 주님의 사랑에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제는 어지러운 영혼의 방황을 끝내고 싶습니다. 청명한 가을 하늘처럼 맑은 웃음을 웃을 줄 아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길어 올린 샘플 한잔을 들이킨 것처럼, 맑은 정신으로 뜨겁게 사랑하며 살고 싶습니다. 굳어진 대지를 갈아엎어 봄을 예비하는 농부의 손길처럼 부지런히 평화의 밭을 가는 자들이 되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능력을 더해주소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참회의 침묵기도	다함께
♠ 위로의 말씀	사54:7-8
인도자	
♠ 교 독 문	38. 이사야 42 장
다함께	
♠ 영 광 송	1. 만복의 근원 하나님
다함께	
대표기도	I. 조관행 집사 II. 조병무 장로
사도신경	다함께
응 답 송	성가대
찬 송	1. 470. 내 평생에 가는 길
다함께	
성경봉독	I. 창 28:10-22
다함께	
	II. 시36:1-9
인도자	
찬 양	성가대
말 씬	I. 매듭
김재홍 목사	
	II. 주님 덕택입니다
김기석 목사	

거듭기도	다함께
헌신의 찬송 522. 주님이 가신 섬김의 길은	다함께
헌금봉헌	다함께
♠ 봉 헌 송 71.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함께
♠ 봉헌 및 목회기도	인도자
공동체 소식	인도자
♠ 평화의 인사	다함께
♠ 결단의 찬송 59. 성전을 떠나 가기 전	다함께
♠ 보냄의 말씀	다함께

인 도 자 :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삶이 아무리 고달파도 하나님의 사랑은 그치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감격을 가슴에 간직한 채 세상에 나아가 생명의 길을 만드는 이들이 되십시오.

다 함 께 : 참 좋으신 하나님,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해도 그것을 이루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온전히 믿고, 온전히 의지하며 주님의 마음 바다에 뛰어들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더위잡고 이전보다 더 거룩하고 아름다운 삶을 향해 솟아오르겠습니다. 우리를 이끌어주십시오. 아멘.

♠ 축 복 담임목사

☼ 우리의 내일은 밝습니다 ☼

주일 오후 집회	수요 집회
에스겔 통독강좌(14)	송구영신예배
기도 : 안정숙 권사	기도 : 박옥식 전도사

다음 주 예배위원	설교	기도	성경봉독
	김기석 목사	한완식 장로	김정길 권사

12월	영접위원	윤정덕	박창운	박규석	조병주	백혜숙	이증자
	헌금위원	윤석철	김중수	한상익	구성실	김필순	이순정

하늘의 눈

전망이 좋은 2층의 커피집 창가에 앉아 창밖을 내다본 적이 있습니까. 거기 앉아 더러는 바쁘게 또는 한가하게, 더러는 혼자서 또는 여럿이서 길을 걸어가는 행인들을 관찰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2층 건물의 커피집 창가에 앉아 밖을 내다보기를 즐기는 편입니다. 거기에 앉아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으면, 세상이 훨씬 잘 보입니다. 종종 나는 내가 잘 아는 지인(知人)이 경망스럽게 웃으며 지나가거나 자신의 여자 친구와 짓궂은 장난을 치고 있는 모습을 목격하기도 합니다. 그런 장면을 목격하는 순간의 묘한 기분을, 아마도 경험이 없는 사람은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나는 그 사람의 일거수 일투족을 모조리 살피고 있는데도, 그 사람은 자기를 내려다보고 있는 나의 시선을 전혀 의식하지 못한단 말입니다. 한번쯤 고개를 들어 위쪽을 바라봄직도 한데 그러지를 않습니다.

그때의 묘한 감회 속에는 본의 아니게 감시자가 된 듯한 미안함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 모르는 사이에 내가 그를 관찰하고 있듯이 나 몰래 나를 관찰하는 어떤, 보이지 않는 눈을 불가피하게 상정할 수밖에 없는 데서 말미암는 두려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겠지만, 누군가가 보고 있습니다. 어떤 눈인가가 숨어서, 위에서, 우리를, 우리의 생각과 행동과 말을 시종 살피고 있습니다.

여기에 다윗의 고백을 인용할 필요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주께서는 내가 앉고 일어서는 것을 아시며, 멀리서도 내 생각을 꿰뚫어 보시고, 내가 일하고 쉬는 것을 다 보고 계시며, 나의 모든 행동을 잘 알고 계십니다.”(시139:2-3)

미국의 큰 슈퍼마켓의 천장에는, 눈에 잘 띄지 않는 감시 카메라가 있는데, 그 카메라를 ‘하늘의 눈(Eye of the Sky)’이라고 부른답니다.

하늘의 눈이 있습니다. 하늘의 눈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의식과 행동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아무도, 한 번도 이 눈, 이 보이지 않는 눈, 이 ‘하늘의 눈’으로부터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영국의 시인 프란시스 톰슨(Francis Thompson)은 이 눈을 ‘하늘의 사냥개’라고 명명한 적이 있습니다.

다.

나는 그에게서 도망쳤다, 밤과 낮의 비탈길 아래로.
나는 그에게서 도망쳤다, 세월의 문들을 지나.
나는 그에게서 도망쳤다, 내 마음의 미로를 따라서.
또한 눈물의 안개 속에
나는 그를 피해 숨었다.

.....

툼슨은 이렇듯 무작정 도망가는 것으로부터 이 시 <하늘의 사냥개>를 시작합니다. 도망하고 도망하지만, 결국 집요하게 추적해오는 ‘하늘의 사냥개’에게 사로잡히고 만다는 내용을 톼슨은 힘차고 장중한 시어로 표현해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의 궤적이 종종 톼슨의 시를 흉내내고 있다는 사실을 거짓없이 인정하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도망가려고 합니다, 우리는. 할 수만 있다면 신으로부터 피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자의식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기도 하고, 더러는 고상한 철학이나 이념이 우리들의 도피처가 되기도 합니다. 더 자주는 눈먼 향락이 신으로부터 우리를 유혹해 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분은, 그 ‘하늘의 사냥개’는 결코 우리를 놓치지 않습니다. 중도에서 추적을 포기하는 ‘하늘의 사냥개’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이 앞에 인용한 시의 뒷부분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할 때, 그는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갈 수 있으며
주 앞에서 어디로
피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하늘에 올라가도
주는 거기 계시며
내가 하계에 가서 누워도
주는 거기 계십니다.

(이승우)

■ **마/음/으/조/읽/는/글**

있으라 하신 자리에

있으라 하신 자리에 있습니다.

떠나시면서 하신 말씀 / 잠시라고 하시면서 있으라시니
다시 만나올 그 머언 시간을 위해
흔들리는 바람결 속에서도 있습니다.

있으라 하신 자리에 있습니다.

티끌보다 연약한 삶 하나 / 떠나시온 그 순간부터
이어진 끈으로 지탱하고 서서
애오라지 견고한 만남을 위하여
젖어드는 비바람 속에서도 있습니다.

있으라 하신 자리에 있습니다.

깨어 일어나 기도하는 새벽부터 / 감사 찬송으로 끝맺는 밤중까지
때로는 고달프고 때로는 서러우나
오실 날짜 그 순간 기다리면서
휘날리는 흙먼지 속에서도 있습니다.

있으라 하신 자리에 있습니다.

떠나시면서 하신 말씀 / 잠시라고 하시면서 있으라시니
다시 만나올 그 머언 시간을 위해
흔들리는 바람결 속에서도 있습니다. (허형만)

◇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들** ◇

담임목사 : 김기석	부담임목사 : 김재흥
원로목사 : 박정오	소속목사 : 한인철
원로장로 : 방현복	김춘려 전영규 김성한
장 로 : 윤정덕	강인식 김철수 조병무 한완식 구성실 이용한 윤석철
성가대장 : 김근중	지휘 : 윤주원
관 리 인 : 노용래	반주: 최윤선 안홍숙 한선희 김수진
	운전기사 : 오진훈
	도서관 관장 : 이순정

◇ 헌금 영수기 ◇

십일조헌금:

이용한 오성희 한상익 정영선 김중수 이순정 문만실 임승동 백혜숙
 정복순 박애순 조문규 진정숙 임창선 김준호 곽혜자 안정숙 고광송
 이춘희 임고운 조병무 송양진 윤정덕 구성실 한인철 조윤숙 박재실
 박홍엽 고사일 최영선 김철수 유명남

월정헌금:

하정석 이명희 윤주원 최윤선 이은자 조항범 오현정 박준희 이기분
 고속이 조항신 허광식 정진경 조병주 김성경 권혁순 박혜경 정원석
 김현영

감사헌금:

김명순 이교영 김홍기 이영란 구명자 진정애 박경선 김지윤 권명자
 무명4

생일감사헌금: 곽혜자 최희영 김준희

◇ 속회 보고 ◇

속 명	인 도 자	속 장	모 인 곳	다음 장소
예루살렘	박 옥 식	차 혜 심	섬	섬
베들레헴	윤 정 덕	정 경 례		
안 디 옥	임 정 자	곽 권 희		
가 나 안	유 영 남	문 영 혜		
갈 린 리	조 병 주	박 애 순		
베 다 니	임 창 선	박 홍 재		
시 온	박 효 선	허 정 윤		
엠 마 오	최 속 화	권 미 정		
에 베 소	이 순 정	한 선 희		
빌 립 보	최 종 원	이 형 숙		
가 버 나 움	구 성 실	안 홍 숙		
나 사 렛	백 혜 숙	정 옥 영		
갈 라 디 아	송 양 진	유 경 순		
고 린 도	이 영 란	이 증 자		
다 메 섹	박 혜 경	최 영 혜		
두 란 노	안 종 일	정 현 주		

■ 교/회/소/식/

◎ 그리스도인에게 선교는 의무가 아니라 기쁨입니다 ◎

2003년 -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골4:17)

1. **송년주일** : 한걸음 한걸음 걷다 보니 벌써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이 끄시고 지켜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2. **임원회** : 예배 후 12월 정기 임원회가 있습니다.
3. **송구영신예배** : 12월 31일 저녁 11시 30분에 시작합니다. 미리 오셔서 기도와 묵상으로 한 해를 마감하고, 감사함으로 한 해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가족들이 함께 예배드리는 모습이 보기에 아름답습니다.
4. **임원헌신예배** : 1월 첫 주인 4일 오후 집회는 임원헌신예배로 드립니다. 모든 임원들이 참석하셔서 마음을 새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5. **사경회** : 중구용산지방 교육부가 주관하는 사경회가 1월 5일(월)부터 8일(목)까지 상동교회에서 열립니다. M.Y.F.는 9시부터 오후 1시까지이고, 장년부는 12시부터 4시까지입니다. 장년부는 저녁시간도 있습니다.
6. **신임원교육** : 지난 당회에서 2004년도 신임원으로 피택되신 분들은 지방에서 실시하는 교육에 꼭 참석하십시오. 등록비 -1만 5천원
일시 : 12월 29일(월), 30일(화) 오후 6시 30분부터 9시까지
장소 : 상동교회
7. **신년주일** : 다음 주일은 온 교우가 함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1부 예배는 없습니다.
8. **헌화신청자** : 한 주에 6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신청자들께서는 해당 주일 바로 전 주에 헌금함에 넣어주십시오.
9. **청년부실** : 여러분들의 수고와 관심으로 청년부실이 어제 새롭게 열렸습니다. 더욱 열심히 모이는 청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10. **신앙실천** : 낡은 수첩을 정리하는 마음으로 금년도 신앙생활을 잘 결산해보십시오. 새로움은 돌아봄과 내다봄이 유기적으로 결합될 때 빛어집니다.

*헌화 - 김희우 (생일)

◇ 집 회 안 내 ◇

부별	시간	장소	부별	시간	장소
유치부	10:50	유치부실	1부예배	09:30	교육관
유초등부	10:50	교육관	2부예배	11:00	대예배실
중고등부	10:50	학생회실	오후집회	14:00	교육관
2 청년회	16:00(±)	청년회실	수요집회	19:30	교육관
1 청년회	16:00(±)	교사실	새벽기도회	06:00	교육관